

발표일 : 2017년 1월 31일



최근 5년간(2012~2016년) 2월 전 해상에서 대체로 파고가 약간 높았음. 단, 중순에는 서해중부해상만, 하순에는 서해중부해상과 남해동부해상만 파고가 낮았음

해양기상

- 최근 5년간(2012~2016년) 2월 상순에는 전 해상에서 파고가 약간 높았음. 2월 중순에는 서해중부해상만 파고가 낮고, 서해남부, 남해안, 동해안, 제주도 해상은 파고가 약간 높았음. 2월 하순에는 서해중부해상, 남해동부해상은 파고가 낮았고, 그 외 해상에서는 파고가 약간 높았음.

※ 해상 정보는 해역별 최근 5년(2012~2016년) 평균 유의파고의 순별 평균값

※ 물결이 낮음(1.0m 미만), 약간 높음(1.0~2.0m 미만), 높음(2.0~3.0m 미만), 매우 높음(3.0m 이상)

- 서해안의 인천은 2월 12일에 890 cm의 고극조위가 나타나며, 남해안의 완도는 2월 11, 12일에 377cm, 동해안의 포항은 2월 10, 11, 12, 13일에 16 cm의 고극조위가 나타나겠음.

해양안전

- 저수온에 따른 짧은 생존시간 대비 철저.
- V-PASS, EPIRB 및 구명동의 등 장비 관리 및 착용 철저.
- 해상 악기상 대비 방수·배수 및 어획물·어망 결박 철저.
- 동절기 화재 예방 철저.

어업기상

- 2월의 연안 평균 수온은 동해가 6~10℃ 분포로 평년에 비해 1~2℃ 높은 수온분포를 보이겠고, 남해는 7~13℃ 분포로 평년과 비슷한 수온분포를 보이겠으며, 서해는 2~6℃ 분포로 평년에 비해 0~1℃ 높은 수온분포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동해: 6 ~ 10℃, 남해: 7 ~ 13℃, 서해: 2 ~ 6℃

자료협조 :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국립수산과학원, 국립해양조사원, 해양안전심판원



해황

▶ 2월의 해상 정보



※ 해상 정보는 해역별 최근 5년(2012~2016년) 평균 유의파고의 순별 평균값

▶ 최근 5년간('12~'16년) 2월 파고 관측값 통계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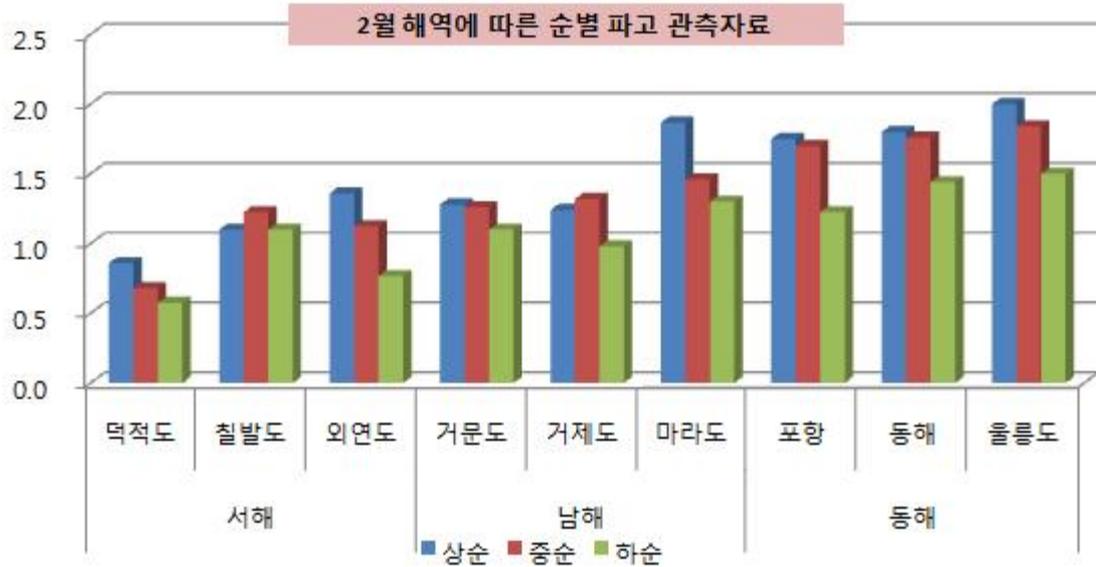


그림 1. 최근 5년간(2012 ~ 2016년) 2월 순별 파고 관측값

최근 5년간(2012년 ~ 2016년) 2월 상순에는 전 해상(덕적도, 외연도, 칠발도, 거문도, 거제도, 동해, 울릉도, 포항, 마라도)에서 파고가 약간 높았음. 2월 중순에는 서해중부해상(덕적도, 외연도)만 파고가 낮고, 그 외 해상(칠발도, 거문도, 거제도, 동해, 울릉도, 포항, 마라도)에서는 파고가 약간 높았음. 2월 하순에는 서해중부해상(덕적도, 외연도)과 남해동부해상(거제도)은 파고가 낮았고, 그 외 해상(칠발도, 거제도, 동해, 울릉도, 포항, 마라도)에서는 파고가 약간 높았음.

2월에 파고가 가장 높았던 곳은 동해중부해상(울릉도)에서 2.0m(상순)이었고, 파고가 가장 낮았던 곳은 서해중부해상(덕적도)에서 0.58m(하순)이었음.(그림1)

▶ 최근 5년 및 2016년 2월 풍랑특보일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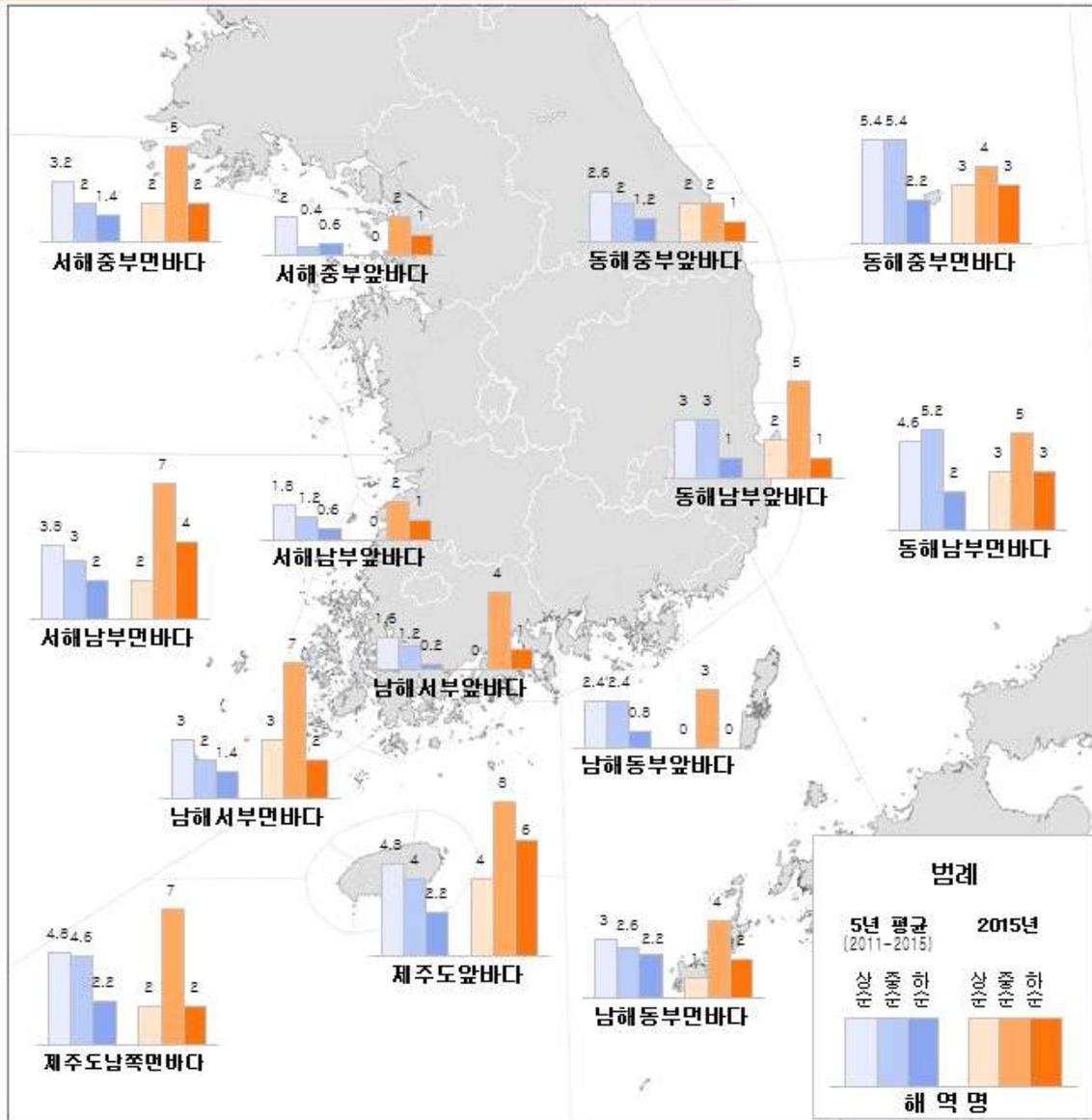


그림 2. 최근 5년(2012 ~ 2016년) 및 2016년 2월의 풍랑특보일수(상순, 중순, 하순)

최근 5년간(2012년~2016년) 2월의 풍랑특보 발표 일수는 평균 7.5일로 전월(1월 평균 7.0일) 보다 0.5일 많았음. 순별 특보 평균 일수는 상순(3.3일)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중순(2.8일)과 하순(1.4일) 순으로 나타남. 지난해(2016년) 2월의 풍랑특보일수는 상순에 1.7일로 최근 5년 평균(3.3일)보다 1.6일 적게 발효되었고, 중순은 4.6일로 최근 5년 평균(2.8)보다 1.8일, 하순에는 2.1일로 최근 5년 평균(1.4)일 보다 0.7일 많이 발효되었음.

최근 5년간 2월에 풍랑특보일수가 가장 많았던 해역은 동해중부면바다로 13일이 발효되었으며, 서해중부앞바다와, 남해서부앞바다에서 3일로 가장 적었음.

▶ 지난해(2016년) 2월의 해황

2016년 2월에는 전 해상에서 북에서 북서풍계열의 바람이 주로 나타났음. 풍속도 해역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전 해상에서 0.5~4.9m/s의 바람이 약 33.8%, 5.0~9.9m/s의 바람이 약 45.8%의 분포를 보였고, 10m/s 이상의 바람은 약 19.4%의 분포를 보였음.

앞바다에서 0.5~4.9m/s의 바람이 약 38.4%, 5.0~9.9m/s의 바람이 약 40.2%, 10m/s이상의 바람이 약 20.2%로 나타남.

2016년 2월의 해역별 바람 상세 특성은 다음과 같음.

해역		주풍계	풍속 분포(%)			
광역	국지		0.5~4.9	5.0~9.9	10.0~13.9	14.0≤
서해중부	앞바다	북서~북동	42.9	39.9	12.8	2.2
	먼바다	북서	39.9	46.7	11.2	0.9
서해남부	앞바다	북~북서	34.9	38.9	20.5	4.2
	먼바다	북~북서	39.6	43.1	15.3	0.1
남해서부	앞바다	북서	17.0	32.9	30.2	19.5
	먼바다	북서	19.7	49.6	27.8	2.2
제주도	앞바다	북서~북동	38.6	42.7	15.8	2.6
남해동부	앞바다	북서	54.2	43.5	1.9	0.0
	먼바다	북서	30.6	56.3	12.8	0.0
동해남부	앞바다	북서~남서	45.3	46.1	7.3	0.9
	먼바다	북서	22.5	50.9	24.4	1.3
동해중부	먼바다	북서	25.1	60.3	14.0	0.2
전해상			33.8	45.8	16.7	2.7

※ 마라도 해양기상부이 자료 수집률 80% 이하로 제주도남쪽먼바다 통계자료로 미반영

작년(2016년) 2월의 해역별 파고분포를 살펴보면, 서해상과 남해상에서 1m~3m 파고의 비율이 50% 내외를 보이며 다소 높은 파고의 비율이 높았고, 특히 동해상에서 72.5%로 서해와 남해에 비해 높게 나타남. 3m~5m의 파고는 서해상과 동해상에서 5% 내외를 보이며 남해상보다 높은 파고의 비율이 높았음. 5m 이상의 파고는 나타나지 않았음.

해역구분	파고분포(%)				
	<1.0m	1.0~1.9m	2.0~2.9m	3.0~4.9m	>=5.0m
서해상	52.8	33.2	9.7	4.3	0.0
남해상	43.6	44.1	9.7	2.6	0.0
동해상	21.7	57.9	14.5	5.8	0.0
전해상	39.4	45.1	11.3	4.2	0.0

※ 마라도 해양기상부이 자료 수집률 80% 이하로 제주도남쪽먼바다 통계자료로 미반영

▶ 해양기상관측망 확충으로 해양 고객 편의 개선

■ 해양기상관측망 현황

해양기상정보는 어업 등 기존 해양관련 산업분야 뿐만 아니라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해양레저, 선박 최적항로 설정 등에 다양한 산업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기상청은 해양고객 편의 개선을 위해 우리나라 주변해역에 대한 해양 기상감시 및 예측을 위한 해양기상관측망의 단계적·지속적 확충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며, 관측 목적에 맞는 장비를 설치하여 고품질의 해양기상관측 자료를 생산·제공하고 있음.

장 비 명		세 부 설 명	
면바다 관측	해양기상 부이 (17개소)		0 설치지점 - 서해(덕적도, 외연도, 칠발도, 인천, 신안, 부안) - 남해(거문도, 거제도, 통영) - 제주(마라도, 추자도, 서귀포) - 동해(동해, 포항, 울릉도-독도, 울산, 울진) 등 0 매시각 기상요소와 해양요소를 관측, 위성통신 - 풍향, 풍속, 기압, 기온, 습도, 수온, 유의파고, 최대파고, 주기, 파향
	선박 기상관측장비 (12개소)		0 해안경비안전본부 함정 10대 0 무궁화1호(동해어업관리단), 무궁화2호(서해어업관리단) 등 0 유관기관선박 등을 활용한 선박기상관측장비 설치 - 풍향, 풍속, 기온, 습도, 수온, 파고
앞바다 관측	등표 기상관측장비 (9개소)		0 설치지점 - 서해(서수도, 가대암, 십이동파도, 갈매여, 해수서) - 남해(간여암, 광안) / 제주(지귀도) / 동해(이덕서) 0 해상에 설치되어 있는 등표에 AWS와 파고계를 설치하여 해양기상 관측 - 풍향, 풍속, 기압, 기온, 파고, 주기, 수온
	파랑계 (3개소)		0 설치지점 - 서해(격렬비도) / 동해(거진) / 제주(고산) 0 전자파가 해면으로 발사하여 감시 - 유의파고, 최대파고, 주기, 파향
	파고부이 (54개소)		0 설치지점 - 서해(신진도, 삼시도, 자은, 옥도, 진도, 이작도, 풍도(항만), 자월도, 서천, 군산, 영광, 맹골수도, 장봉도, 변산, 천수만, 안면도, 비안도, 낙월, 대치마도, 조도) - 남해(두미도, 청산도, 장안 해금강, 금오도, 한산도, 북항(항만), 남항(항만), 노화도, 고흥, 잠도, 소매물도, 남해, 연화도) - 동해(죽변, 구룡포, 연곡, 후포, 토성, 삼척, 간절곶, 월포) - 울릉도연안(구암, 혈암, 울릉읍) / 독도연안(독도) - 제주(제주항, 중문, 추자도, 우도, 가파도, 협재, 김녕, 신산) 0 연안 또는 평수구역 수심 40m 전후 해역에서 파고를 자 동으로 관측 - 파고, 파주기, 수온
	연안방재 관측장비 (18개소)		0 설치지점 - 서해연안(대산, 죽도, 말도, 격포, 영광, 지산, 흑산도, 신안) - 남해연안(통영, 여수, 해남, 실리도) / 제주연안(판포, 서귀포) - 동해연안(영덕, 주문진, 구룡포, 울산) 0 연안 및 해안에서 해상의 장주기 관측 - 관측요소: 파주기

2017년 해양기상관측망 확충 계획

- ◇ (먼바다) 선박기상관측망 2대 신설, 총 14개소로 확충
- ◇ (연근해) 파고부이 5대 신설, 총 59개소로 확충

기상청은 우리나라 주변의 바다에서 해양기상 감시 강화를 위해 올해(2017년) 파고부이* 5대, 선박기상관측장비** 2대를 추가 설치할 계획임.

- * 파고부이: 앞바다 및 특정관리해역에 설치하여 파고, 수온 등 해양기상을 관측하는 장비
- ** 선박기상관측장비: 원해역을 항해하는 관계기관의 선박에 AWS와 수온계를 설치하여 파고, 바람, 기온, 기압 등 해양기상을 관측하는 장비

○ 파고부이 확충 계획

연안 해역의 해양기상 감시하기 위해 운영 중인 '파고부이'는 2010년에 9대를 시작으로 올해(2017년) 5대를 추가로 설치하여 총 59대의 관측망을 운영할 예정.

(남해) 경남서부남해앞바다서부평수구역 1대, 전남남부서해앞바다 1대
 (서해) 전남동부남해앞바다 1대, 전북남부앞바다 1대
 (제주도) 제주도서부연안바다 1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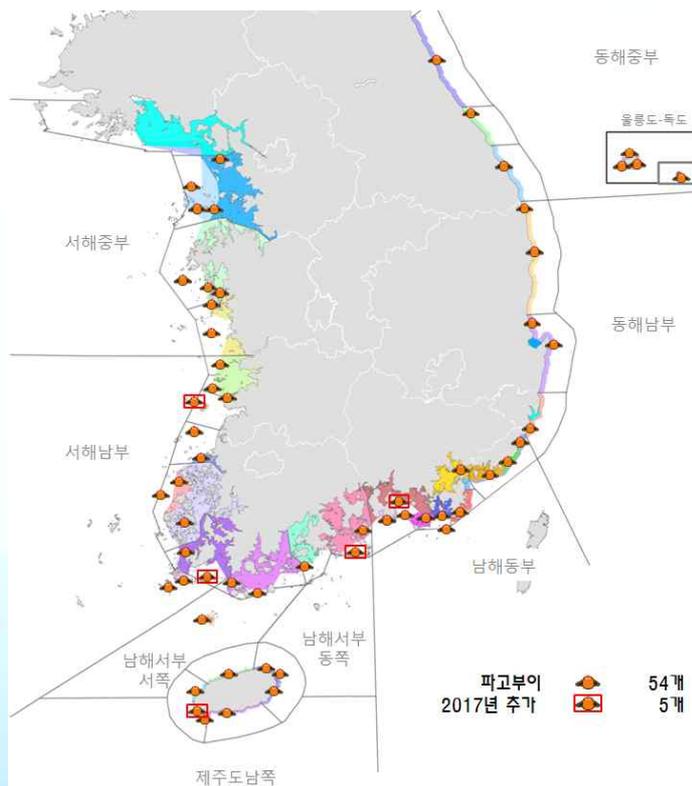


그림 3. 파고부이 관측망

○ 선박기상관측장비 확충 계획

우리나라는 편서풍 지대에 속해 있어 서에서 동으로 이동하는 기단이 해상을 지나면서 미치는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서해의 먼바다에서 해양기상현상을 선제적으로 수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현재 기상청의 선박기상관측장비는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의 경비함정 10척과 해양수산부 어업지도선 2척에 설치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올해(2017년)는 우리나라와 외국항(중국, 러시아, 일본 등)을 일정한 항로로 정기 운항하는 국제여객선 2척에 선박기상관측장비 설치하여 해양기상현상을 실시간 감시를 강화할 계획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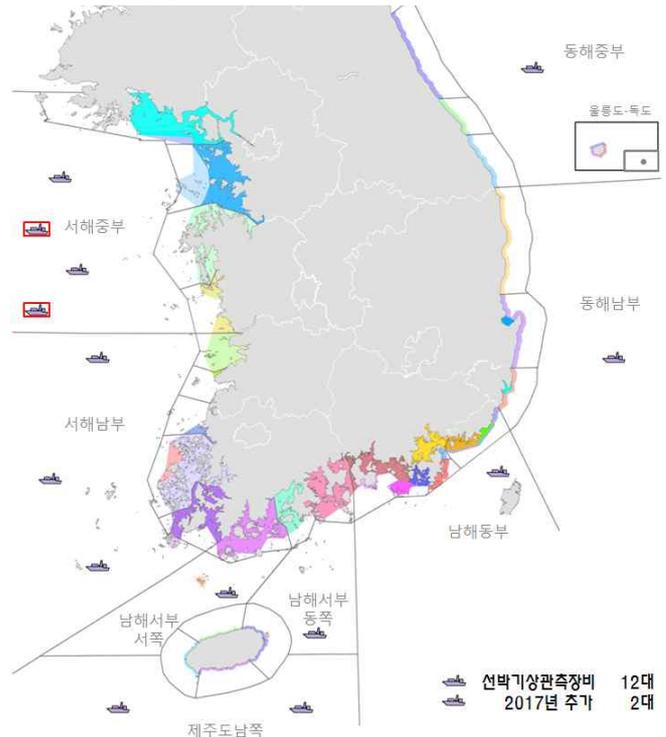


그림 4. 선박기상관측장비 관측망

기대 효과

☞ 지역경제 활성화

국민들의 다양한 경제 활동 및 해양활동이 이루어지는 해안을 매시 실시간으로 관측하게 되어, 다양한 해양기상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되고, 어업, 관광, 해상운송 등 다양한 해양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해상 안전사고 최소화

해양 위험기상현상시에도 지속적인 해상관측을 통해 관측자료가 실시간으로 제공되고, 해양 관측공백을 줄여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최소화에 기여함.

☞ 효율적인 해양 특보 운영 지원

해양기상관측장비 설치로 해역별로 객관적인 관측자료가 확보되어 해역별 해상특성에 맞는 세분화된 해양기상정보 생산과 함께 탄력적인 해양 특보 운영이 가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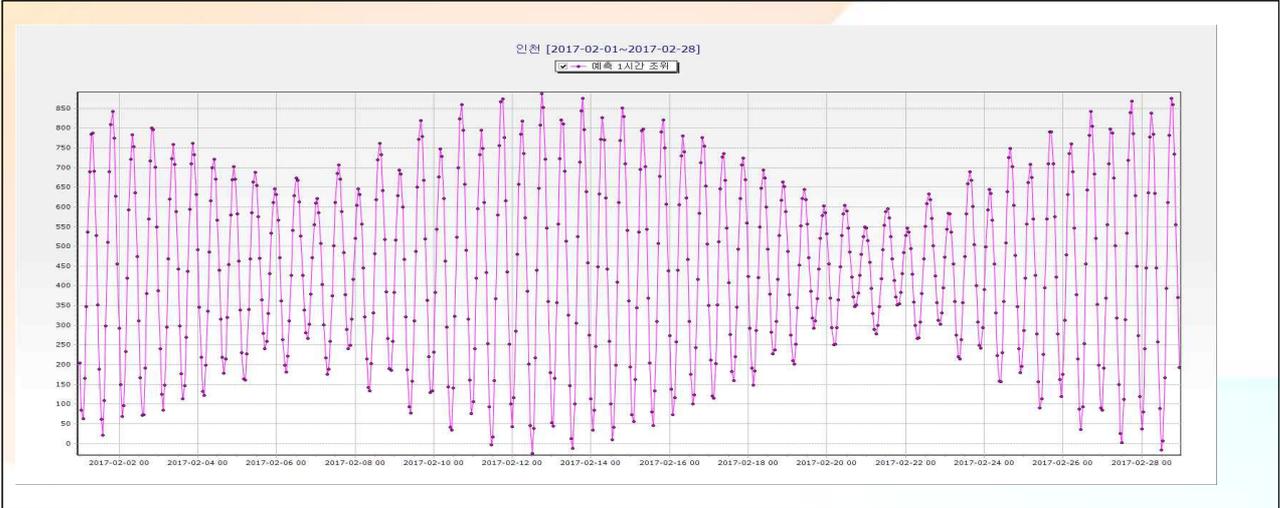
 **조석 예보**

▶ 2017년 2월 조석 예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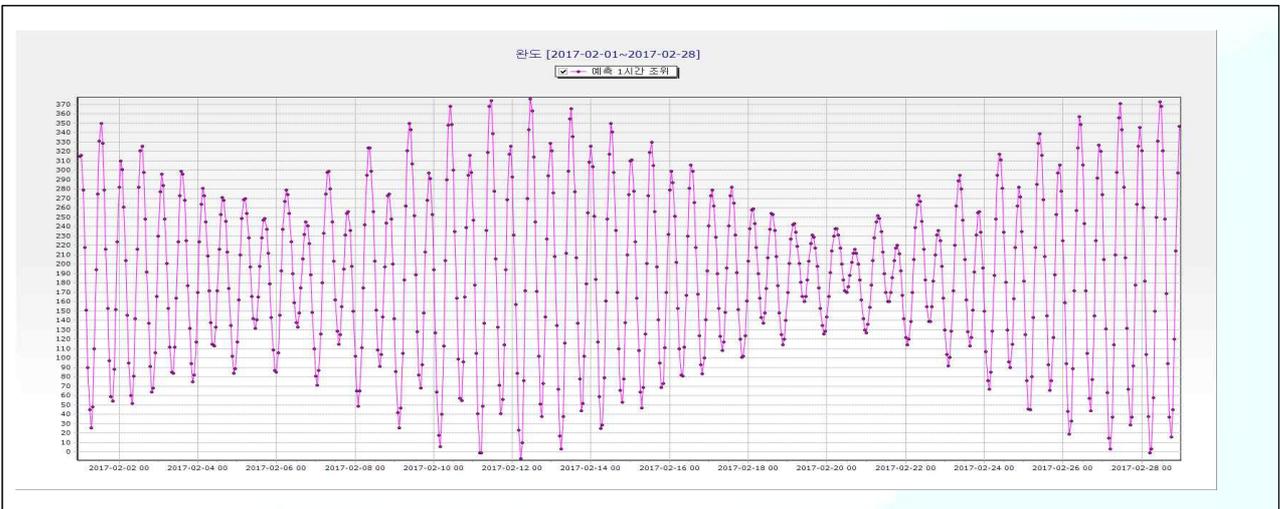
서해안의 인천은 2월 12일에 890 cm의 고극조위가 나타나며, 남해안의 완도는 2월 11, 12일에 377cm, 동해안의 포항은 2월 10, 11, 12, 13일에 16 cm의 고극조위가 나타나겠음.

해역	지역	대조기(망 2.11)		대조기(삭 2.26)	
		고극조위(cm)	발생시각	고극조위(cm)	발생시각
서해안	인천	885	17:34	843	17:07
	안흥	658	16:33	634	16:08
	군산	680	15:48	647	15:26
	목포	464	14:51	429	14:25
남해안	제주	266	11:14	252	10:55
	완도	377	10:37	359	10:18
	마산	190	09:23	178	09:04
	부산	119	08:54	110	08:36
동해안	포항	16	02:44	12	02:49
	속초	27	02:36	25	02:24
	울릉도	14	02:00	10	01: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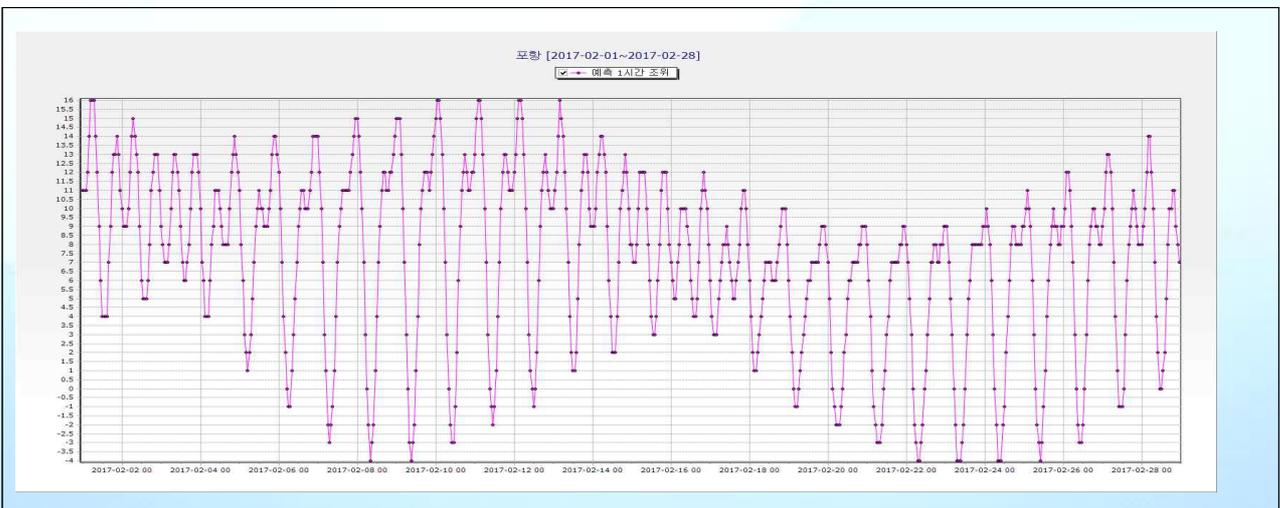
2017년 조석표(한국연안)는 국립해양조사원 홈페이지(www.khoa.go.kr), ARS(1588-9822), 조석예보앱(Android)에서 확인하실 수 있음.



< 2017년 2월 서해안 인천지역 조석예보 >



< 2017년 2월 남해안 완도지역 조석예보 >



< 2017년 2월 동해안 포항지역 조석예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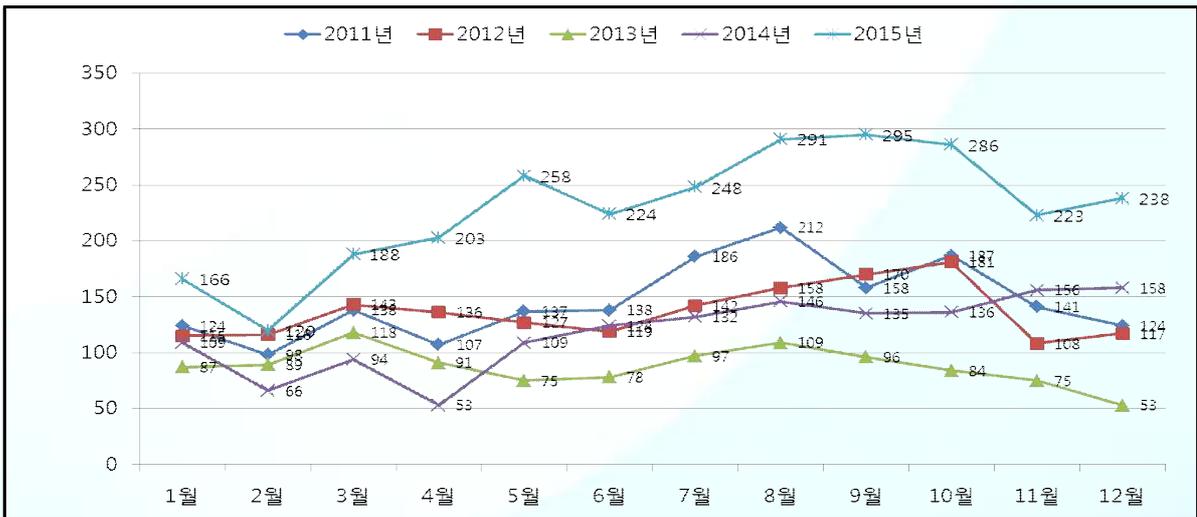
해난사고 현황

▶ 해양사고 통계(최근 5년간, '11.1.1 ~ '15.12.31)

최근 5년 동안 선박사고는 총 8,592척(58,783명)이 발생하여 선박 8,255척(96.1%) 및 선원 57,949명(98.6%)이 구조되고, 선박 338척(3.9%) 및 선원 807명(1.4%)이 사망(623명)·실종(211명)되는 인명피해 발생.

구분	발생		구조		구조불능		인명피해	
	척	명	척	명	척	명	사망	실종
계	8,592	58,783	8,255	57,949	338	807	623	211
2015년	2,740	18,835	2,639	18,723	101	112	77	35
2014년	1,418	11,180	1,351	10,695	68	458	396	89
2013년	1,052	7,963	1,015	7,896	37	67	48	19
2012년	1,632	11,302	1,570	11,217	62	85	64	21
2011년	1,750	9,503	1,680	9,418	70	85	38	47

■ 월별 선박사고 현황



▶ 해양사고 현황(2월)

- 2월의 해상조난사고는 어선 319척, 예부선 35척, 화물선 28척 등 총 489척 발생.
- 2월은 사고발생률이 1년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동절기 기상불량에 따른 해양활동이 감소함에 따라 전체적인 사고발생 빈도는 낮음.
- 유형별로는 기관고장 120척, 충돌 46척, 침수 41척의 순으로 많이 발생.

해양 안전정보

- 최근 5년간 2월 선박사고는 평균 98여척이 발생하여, 다른 기간에 비해 사고발생 빈도는 낮게 나타났으나 동절기 정비 불량에 따른 기관고장, 운항 부주의로 인한 충돌, 관리소홀 및 기상악화에 따른 침수 사고가 다수 발생.
- 일부지역에서는 폭설로 인해 선박이 침몰되는 사례도 있으므로, 기상예보를 주시하고 폭설시 선박 확인 및 제설작업 철저.

해양사고 방지대책

■ 저수온에 따른 짧은 생존시간 대비 철저

- 동절기에는 해수온도가 저온이므로 해상탈출은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하며 불가피하게 해상으로 탈출할 경우에는 보온복 및 구명동의 착용 후 탈출
- 실족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선내 정리 및 승선원 확인 철저.
- 해상 추락 시 체온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 자세 등 기본적인 대처법 숙지

■ V-PASS, EPIRB 및 구명동의 등 장비 관리 및 착용 철저

- 동절기 혹한으로 익수자 생존시간이 3시간 미만으로 극히 짧으므로 구명동의는 동절기 익수자의 체온 보온 및 신속한 발견과 구조를 위한 필수적인 구명장비이므로 해상 조업시·이동시 필히 착용.
- 최후의 인명구조 장비인 EPIRB·SSB 등 구난통신기 관리 철저, 1인 조업선은 필히 출어진 자동출입항 장비(V-PASS) 작동상태 확인.

■ 해상 악기상 대비 방수·배수 및 어획물·어망 결박 철저

- 짧은 시간에 해상기상이 급격히 악화되므로 출항전·조업중 어선에 침입된 해수의 어창·기관실 침입 방지 및 원활한 갑판상 해수의 배출을 위한 배수구 점검.
- 어망용 대형 닻 등 중량물을 갑판에 적재한 어선은 이동전 갑판상에 적재된 어망 및 어획물이 파도에 의해 움직이지 않도록 결박 철저.

■ 동절기 화재 예방 철저

- 낮은 기온으로 난방기 사용 시 주위 발화물질 제거 및 관리 철저.
- 선질이 FRP 선박인 경우에는 작은 불씨에 의해 쉽게 발화되므로 연돌 부근에 스티로폼 등 발화성 물질 적재 금지, 연돌·기관실 안전관리 철저.
- FRP 어선은 화재 발화시 진화가 거의 불가능하여 선체 전소 또는 선체 침몰로 직결되며, 유독성 가스에 의한 질식사 등 대형 물적·인적피해 발생.

2월 해양사고 예보

제공 : 해양안전심판원

[최근 5년('12~'16년)간 발생한 해양사고 기준]

2월에 주의해야 할 해양사고 및 예방대책

◇ 2월은 사고 발생률이 1년 중 가장 낮으나, 침몰사고는 가장 많이 발생

○ 최근 5년간 월별 침몰 사고현황('11~' 15, 단위 건)

월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건수	13	37	18	10	11	5	12	27	9	14	11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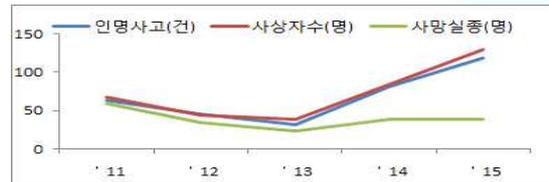
* (2월 침몰 선종별) 어선 29, 기타선 4 건 등 (2월 침몰 톤수별) 5톤 미만 29, 5-20톤 4 건

** (침몰사고 원인분석) 대부분 어선 및 5톤 미만 선박에 발생, 폭설 등 기상악화 대응 미비

◇ (연중) 감소 추세에 있던 어선 「인명사상사고*」가 큰 폭으로 증가

○ 최근 5년간 발생한 어선사고 중 「인명사상사고」 현황('11~' 15)

연도별	'11	'12	'13	'14	'15
인명사고(건)	63	45	32	81	119
사상자수(명)	68	44	38	84	129
사망실종(명)	59	34	23	39	39



* (인명사상사고) 선박의 구조·설비·운용과 관련해 사람이 사상한 사고

** 어선에서 양망 등 어로작업 중 발생하는 사고는 인명사상과 직결됨

2월 해양사고 현황

최근 5년간 2월 해양사고는 총 453건(513척) 발생하여 연평균 103건 발생('11~'15)



선종별 해양사고 현황



유형별 해양사고 현황

2월 주요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

◆ 어획물 운반선 침몰사고 예방

주요 취약점	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겨울철 항해시 악천후에도 불구하고 갑판 상 어창의 수밀불량 ○ 항해 중 어창의 해수유입 상태 등에 대한 주기적 확인과 유입된 해수의 배출 등 당직자의 조치 불철저 ○ 해상에서의 사고 발생으로 인한 퇴선 시 저체온증으로 인한 인명 사상에 취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의 출항 전 어창의 수밀조치 포함 감항능력에 대한 점검 철저 ○ 항해 중 당직자는 철저한 당직 수행으로 사고예방 ○ 겨울철 해상에서 퇴선 시 반드시 방수작업복의 착용 등 체온유지를 위한 조치 철저

◆ 어선 인명사상사고 예방

주요 취약점	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선에서 양망 등 어로작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고는 인명사상과 직결됨 ○ 양망 작업 중에는 모든 선원이 작업에 동참하므로, 작업에 익숙치 못한 선원의 사상에 취약 ○ 작업에 익숙한 선원이라 하더라도 시간단축 등을 위해 안전수칙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작업을 진행할 경우 사고발생 위험이 높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선의 선장은 조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파악하여 선원에게 교육·훈련 철저 ○ 양망 작업에 익숙치 못한 선원이 작업에 동참할 때에는 양망기의 조작에 더욱 주의하여야 함 ○ 어선의 조업 중 숙달된 작업이라 하더라도 작업자는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함



수온 동향

제공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2월의 예상 수온

2월의 연안 평균 수온은 동해가 6~10℃ 분포로 평년에 비해 1~2℃ 높은 수온분포를 보이겠고, 남해는 7~13℃ 분포로 평년과 비슷한 수온분포를 보이겠으며, 서해는 2~6℃ 분포로 평년에 비해 0~1℃ 높은 수온분포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그러나 간헐적인 한파가 찾아올 경우 수심이 얇은 연안은 일시적으로 평균 수온 범위보다 더 낮은 수온을 보일 수도 있음.

- 동해: 6 ~ 10℃ 분포
- 남해: 7 ~ 13℃ 분포
- 서해: 2 ~ 6℃ 분포

▶ 지난달 수온 분포

1월의 월평균 연안 수온은 월평균 4.4~14.3℃ 범위로 분포하였음. 동해연안은 8.8~9.9℃, 남해 연안은 8.9~14.3℃, 서해연안은 4.4~8.7℃의 분포를 보였음.

인공위성 자료로 분석된 한반도 주변 해역의 1월 표층 수온분포는 동해 연근해역은 15~18℃로 평년(10~16℃)에 비해 1~4℃ 범위의 높은 수온분포를 보였으며, 남해 연근해역은 11~20℃로 평년(10~17℃)에 비해 1~3℃ 범위의 높은 수온분포를 보였고, 서해 연근해역은 6~11℃로 평년(5~11℃)에 비해 1℃ 내외의 높은 수온분포를 보임.



어장 분포

▶ 지난달(1월) 어황

1월의 주요 어종별 어황을 살펴보면 갈치, 망치고등어, 말쥐치는 평년비 순조로웠으며, 고등어, 멸치, 살오징어, 전갱이 그리고 참조기는 평년비 부진하였음.

▶ 2월 어황 정보

2월에 들면 대형선망어업은 고등어, 전갱이, 방어, 삼치, 갈치 등을 대상으로 제주 주변해역 및 남해 동부해역을 중심으로 어장이 형성되겠음. 전체적인 어황은 평년수준으로 전망.

기선권현망어업은 남해도와 거제도 주변해역을 중심으로 조업하겠으며, 울산~기장 연안에서도 동해 중남부해역에서 남하하는 어군을 대상으로 부분적인 어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 전체적인 어황은 평년수준 또는 평년비 부진할 것으로 전망.

근해안강망어업은 서해 남부해역과 제주도 북서부 먼 바다에서 중심어장이 형성되겠으며, 아귀류, 갈치, 복어, 참조기 등을 대상으로 조업할 것으로 전망. 전체적인 어황은 평년비 순조로울 것으로 예상.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은 아귀류, 말쥐치, 갑오징어류를 대상으로 제주주변 근해~대마도 서부해역에 걸쳐 조업이 이루어질 전망. 외끌이대형저인망어업은 제주도 남서부 근해부터 남해 동부해역에 걸쳐 민어, 갑오징어류, 참돔, 가자미류 등을 대상으로 어장이 형성. 서남구중형저인망어업은 가자미류, 민어, 눈불대, 아귀류 등을 대상으로 제주 동부~대마도 북쪽 근해에 걸쳐 동해 남부해역에 걸쳐 조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 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은 경북 및 강원연안에서 도루묵, 청어, 대구, 기름가자미 등을 대상으로 조업이 이루어질 전망. 오징어채낚기어업은 계절적인 수온하강으로 남하하는 어군에 의해 동해 중부해역에서는 어장이 축소되고, 남해 중부 및 동부해역으로 어장이 확장될 것으로 예상. 전체적인 어황은 평년비 부진할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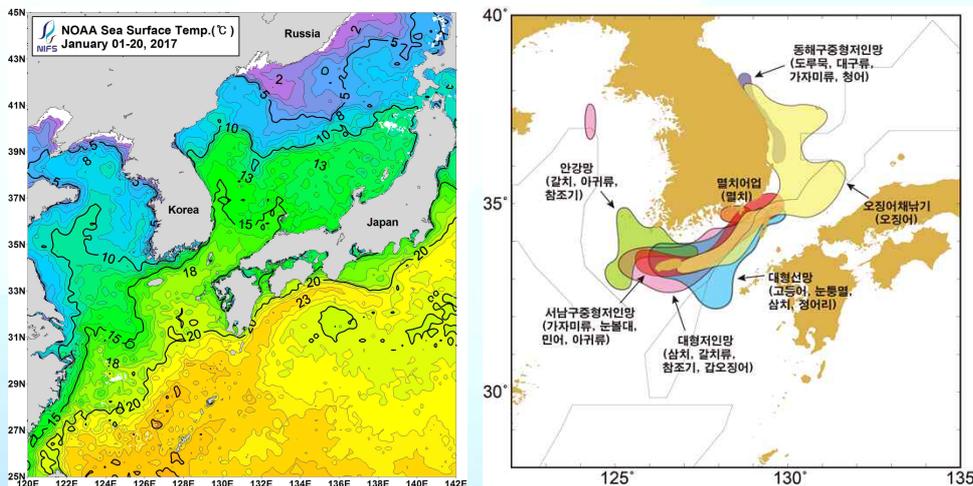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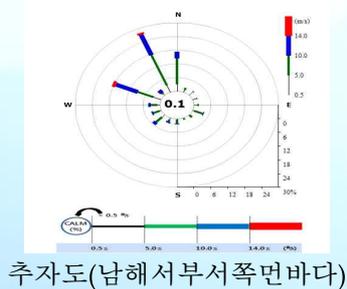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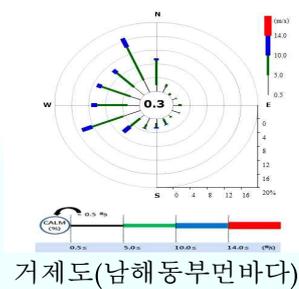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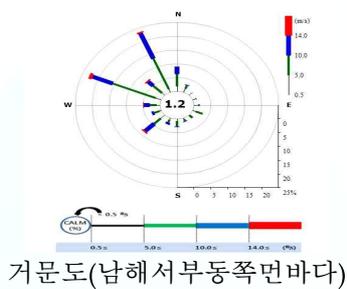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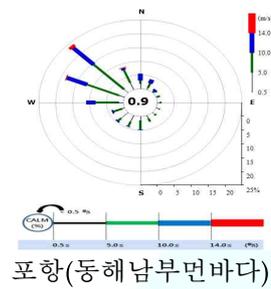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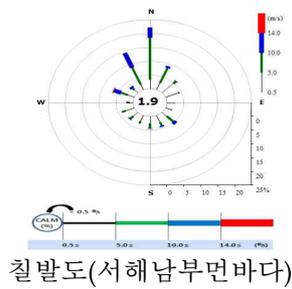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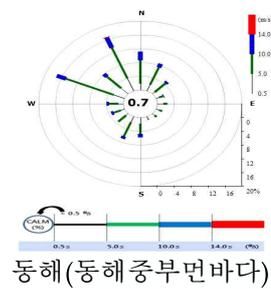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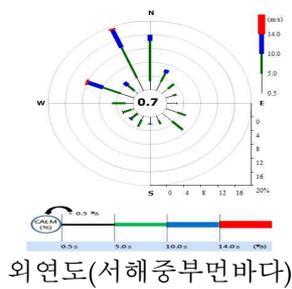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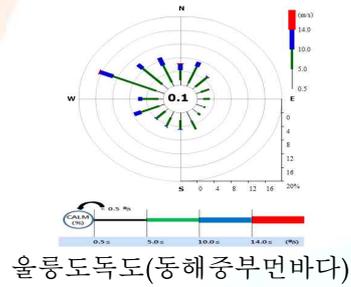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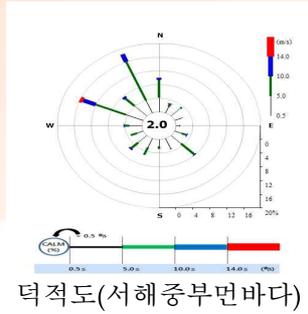


그림 . 광역 수온 분포(위성) 및 어업별 예상어장도(2월)

고 등 어	고등어는 제주 주변해역~동해 남부해역(대마도 북동쪽 근해)에 걸쳐 어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 동중국해로의 계절적인 남하회유가 활발한 시기로 어군의 상당부분이 우리어장을 빠져나가 전월에 비해 어획량이 감소할 전망. 전체적인 어황은 평년수준 또는 평년비 부진할 것으로 전망.
살오징어	살오징어는 계절적인 남하회유 및 겨울철 산란 시기를 맞아 동해 남서부해역 및 동중국해 북부해역에서 중심어장이 형성. 우리바다에서의 자원밀도는 전월에 비해 크게 낮아져 한어기(2~6월)가 시작될 전망. 전체적인 어황은 평년수준 또는 평년비 부진할 것으로 전망
멸 치	멸치는 월동을 위해 남하하는 어군을 대상으로 남해도~거제도 주변해역에서 중심어장이 형성되겠으며, 울산~기장 주변해역에서도 부분적인 어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 전체적인 어황은 평년수준 또는 평년비 부진할 것으로 전망.
갈 치	갈치는 제주 주변해역을 중심으로 남해 전해역에서 어장이 형성될 전망. 전체적인 어황은 평년비 순조 또는 평년수준으로 예상. 미성어의 어획비율이 여전히 높아 소형개체를 대상으로 한 어획 자제가 요구.
참 조 기	참조기는 월동을 위해 남하하는 어군에 의해 제주 서부 근해와 남해 중서부해역을 중심으로 어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되며, 전체적인 어황은 평년비 부진할 것으로 예상.
전 갱 이	전갱이는 제주 주변해역부터 동해 남서부해역에 걸쳐 어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 산란시기(2~4월)를 맞아 산란장인 동중국해로 남하하는 어군에 의해 어획량은 전월에 비해 감소할 전망. 전체적인 어황은 평년비 부진할 것으로 전망.
기 타	그 외, 망치고등어는 제주 남동부 근해~대마도 주변해역에 걸쳐 중심어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순조로운 어황이 이어질 전망. 말쥐치 또한 제주 남동부~대마도 근해에 걸쳐 어장이 형성되어, 순조로운 어황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

【참고자료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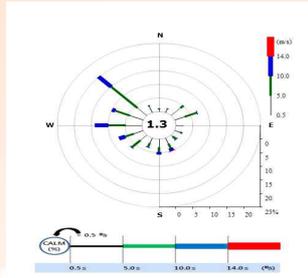
2월의 해상풍(해양기상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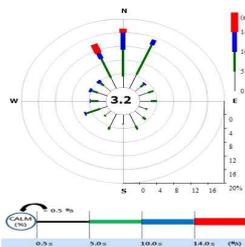
※ 마라도(제주도남쪽면바다) 자료 수집률 80% 이하로 통계자료 미생산

그림 . 해양기상부이 관측 해상풍('16년 2월, 바람장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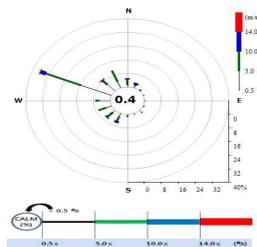
2월의 해상풍(등표기상관측장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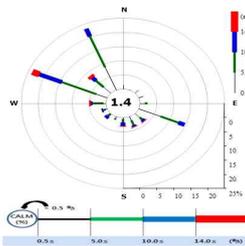
서수도(서해중부앞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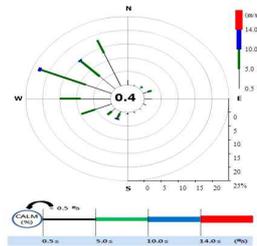
가대암(서해중부앞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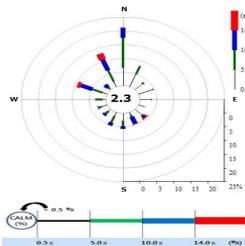
이덕서(동해남부앞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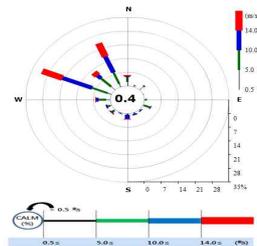
십이동파(서해남부앞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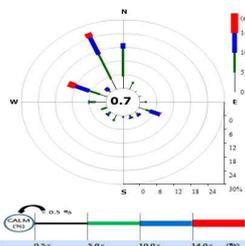
광안(남해동부앞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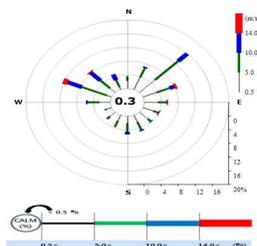
갈매여(서해남부앞바다)



간여암(남해서부앞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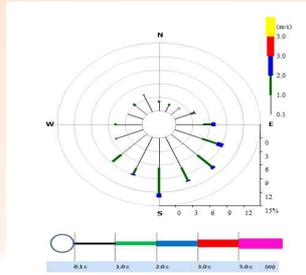
해수서(서해남부앞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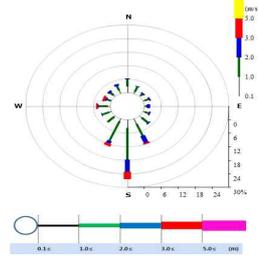
지귀도(제주도 앞바다)

그림 . 등표기상관측장비 관측 해상풍('16년 2월, 바람장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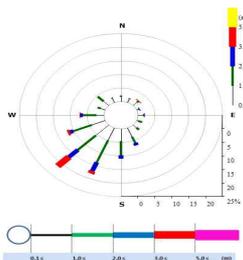
2월의 파랑(해양기상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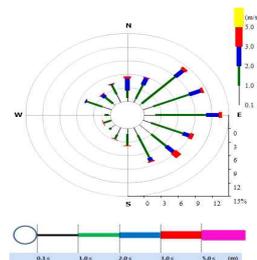
덕적도(서해중부면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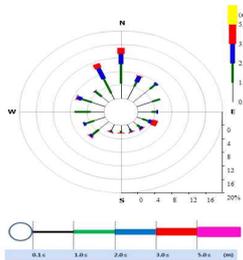
울릉도독도(동해중부면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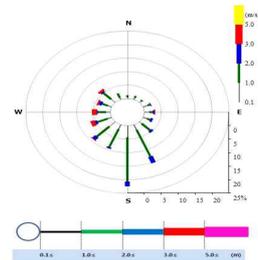
외연도(서해중부면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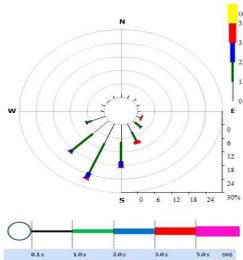
동해(동해중부면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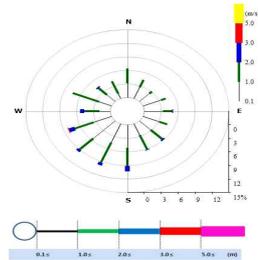
칠발도(서해남부면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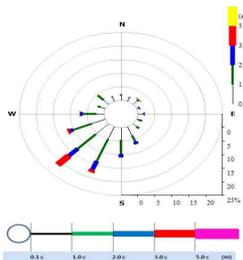
포항(동해남부면바다)



거문도(남해서부동쪽면바다)



거제도(남해동부면바다)



추자도(남해서부서쪽면바다)

※ 마라도(제주도남쪽면바다) 자료 수집률 80% 이하로 통계자료 미생산

그림 . 해양기상부이 관측 파랑('16년 2월, 파랑장미)

【참고자료 2】

▶ 2월의 주요 해양사고일지

일시	선명	피해	사고원인
'16.2.27 08:52	106오*호 (7.93톤, 어획물운반선, 승선원 2명)	선체반파	투묘 중이던 어획물운반선 106오*호(7.93톤)이 기상악화로 주요하여 표류타 간출암에 충격한 후 전복 ※ 당시기상 : 남서풍, 10~14m/s, 파고 2.5~3m



106오*호 사고현장



수색현장